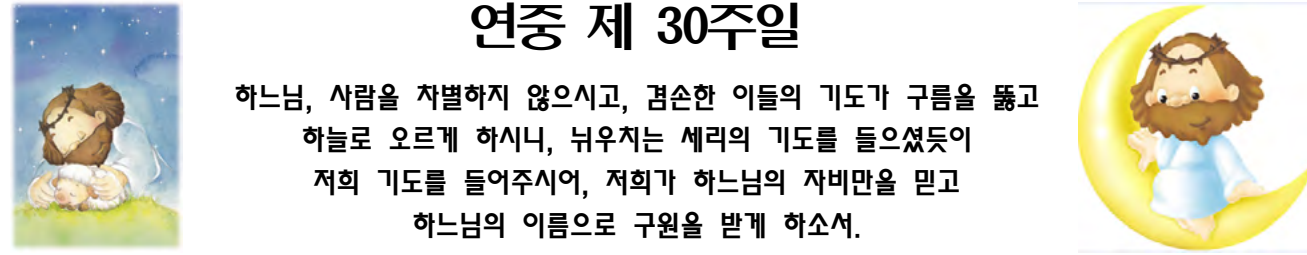


공동체 소식



연중 제 30주일

하느님,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겸손한 이들의 기도가 구름을 뚫고
하늘로 오르게 하시니, 뉘우치는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듯이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어, 저희가 하느님의 자비만을 믿고
하느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게 하소서.

10월 기도지향

- 김정환(요한), 김윤아(글라라) 가정
- 유길수(크리스토퍼), 유경애(아네스) 가정

☞ 11월 기도 지향 : 김정원(베드로), 김말자(세실리아) 가정 / 김도영, 박희영(카타리나) 가정

묵주기도 성월(전교의 달)

전 세계 교회는 해마다 시월을 ‘묵주 기도 성월’로 지냅니다. 묵주 기도를 자주 바치는 가운데 예수님과 성모님의 신비들을 깊이 묵상하며 믿음을 더욱 깊게 하려는 것입니다. 묵주 기도에 대해 바오로 6세 교황은 “복음서 전체의 요약”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묵주기도를 통해 우리 영혼을 살찌우고 구원의 신비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도록 노력합시다.

사목 방문

11/24(일) 중심미사에, 캔사스 대교구 Joseph F. Naumann 대주교님께서 저희 한인 공동체를 사목방문 하십니다. 평협과 단체장님들, 특히 공동체의 마음을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목 방문을 위한 ‘9일 기도’는 11/15(금)부터 가정 별로 봉헌하겠습니다.

구역 회의

- 일시 : 10/27(일) 오후 1시
- 장소 : 회관
- ☞ 이번 구역모임부터 <신앙생활보감> 유인물을 나누어 드립니다.

구역모임

- 1구역 : 11/9(토) 오후 7시, 정석원 라파엘 가정 12317 W. 102nd St. Lenexa, KS 66215
- 2구역 : 11/9(토) 오후 7시, 안동현 프란치스코 가정 14317 Hadley St. Overland Park, KS 66223
- 3구역 : 11/8(금) 오후 8시, 이우영 가브리엘 가정 14304 Outlook St. Overland Park, KS 66223
- 4구역 : 11/9(토) 오후 7시, 고영방 스테파노 가정 8109 W. 144th terr. Overland Park, KS 66223
- 5구역 : 11/9(토) 오후 7시, 김정환 요한 가정 9008 N. Lewis ave. Kansas city, MO 64157

기타

- 11월은 ‘위령성월’입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부모나 친지의 영혼, 특히 연옥 영혼을 위해 기도와 희생을 봉헌합니다.
- 11/1(금)은 ‘모든 성인 대축일’이며 미국교회의 의무축일입니다. 오후 7시, 회관에서 미사 봉헌합니다.

전례 성가

시 작	예 목	성 체	마 침
59	340	504/501	400

주일미사 복사

	항 복사	시종 복사
금주	문석찬(요 셉)	정병훈(보니파시오)
	문호진(안토니오)	김준영(요 셉)
차주	고영방(스테파노)	김태중(예레미아)
	고평원(프란치스코)	문에나(요 안 나)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주	최은미(아 네 스)	김태중(예레미아) 김시연(엘리사벳)
차주	김주연(세실리아)	홍순익(마르티노) 최은미(아 네 스)

애찬 봉사자

금주	김주연, 박희영, 이영민, 임지현, 김정애
차주	김경희, 안혜진, 김인자, 정연숙, 한순례

헌금 봉사자

금주	김시연(엘리사벳), 백문주(엘리사벳)
차주	최은미(아네스), 문석찬(요셉)

우리들의 정성

하느님께 드리는 헌금과 교무금에 정성을 다해투셔서 감사합니다!!!

	참례인원	헌금	교무금
10/20	90명	763불	3,100불
류기범, 배갑원, 김호원, 박동희, 정준구, 김성찬, 문석찬, 김태중, 김도영, 주영길, 차호섭 (총 11세대)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요일: 7:00 PM
목요일: 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캔사스 한인 천주교회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 563-7896 www.kckcatholic.org

주보 편집 : 박동희 안나 660.853.9984 flyanna@gmail.com

주임신부 주영길 토마스
M: 913.633.1273
jooyk88@gmail.com
회 장 안동현 프란치스코
M: 913.219.8066
Tonghyun.An@gmail.com
부 회 장 정수한 베드로
M: 913.707.8142
scnn8@hotmail.com
재 무 차호섭 요셉
M: 614.598.7908
hscha72@gmail.com

오늘의 전례



오늘은 연중 제30주일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들어오는 대로 보고 판단하지만 하느님께서는 마음을 보십니다(1사무 16,7 참조). 그래서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능력, 재산, 신분 등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과 달리, 오늘 복음처럼 예수님께서는 내면의 겸손을 강조하십니다. 10월의 마지막 주일 미사를 봉헌하며 하느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겸손하지 돌아봅시다.

성화해설

바리사이와 세리 (제임스 티소, 1886-1894년, 브룩클린박물관 소장)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 엄두도 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하였다. ‘오, 하느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루카 18,13)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달은 세리는 오직 하느님께 용서와 자비, 그리고 은총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에는 자신이 아닌 하느님을 향한 세리의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하느님께 희망을 두는 삶, 이는 사랑이신 하느님에 대한 믿음에서 시작합니다. 이 믿음이 하느님께서 세리를 의롭게 하신 까닭입니다.

지영현 시은 신부 | 한국가톨릭미술가협회

제 1 독서 : 집회 35,15ㄴ-17.20-22ㄴ < 겸손한 이의 기도는 구름에까지 올라가리라. >



가 없 은 이의부 르 짚 음 을 주 님 께 서 들 어 주 셧 도 - 다

○ 나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리니 내 입에 그 찬미가 항상 있으리라.

내 영혼아 주님 안에서 자랑해보라 없는 이들 듣고서 기뻐들하라. ◎

○ 주님의 얼굴은 악을 하는 자들을 노려보시며 그들의 이름을 땅에서 없애려 하시나니 의인들이 외치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근심 걱정을 다 풀어 주시었도다. ◎

○ 마음이 부서진 이를 주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넘어 꺾인 이들을 구하시도다.

주님께서 당신 중의 목숨을 구하시니 당신께 피하는 이는 죄를 받지 않으리라. ◎

제 2 독서 : 2티모 4,6-8.16-18

< 이제는 의로움의 화관이 나를 위하여 마련되어 있습니다.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하느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기셨네. ◎

복 음 : 루카 18,9-14 < 바리새자가 아니라 세리가 의롭게 되어 집으로 돌아갔다. >

쉐 마

“하늘나라는 겸손한 사람들이 들어간다”



어느 겨울날 한 추기경님이 로마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 건너편에서 허리가 구부정하고 남루한 옷을 걸친 한 노인이 터덜터덜 걸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추기경님은 노인의 모습이 측은하여 말을 건넸습니다. “어르신, 이 추운 겨울에 어디를 가십니까?” 그러자 그 노인은 “예, 추기경님! 저는 건축학교에 가는 길입니다. 배울 것이 아직도 많은데 저에게 인생의 시간이 별로 없네요.”라고 대답을 한 노인은 당대 최고의 예술가였던 미켈란젤로였습니다.

자신만이 최고이며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교만한 마음은 자신의 발전을 막고 인간관계 뿐 아니라 하느님과 의 관계도 파멸로 이끕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죄의 원인 중 하나로 ‘교만’을 꼽습니다. 겸손은 자신이 가치 없는 존재이거나 구원받지 못할 죄인이라고 단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화 데레사 성녀는 “겸손은 진리입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우리 인간은 하느님이 아니며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 이 미약함이 우리의 현실임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누립니다. 고통과 힘든 현실까지도 하느님께 봉헌하며 남의 이목이나 가치 판단 따위에 자신을 맡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유일한 안내자는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그래서 겸손은 인내심을 길러주고,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아 다른 사람에게 관대하고 여유를 갖게 합니다. 따라서 겸손한 사람은 기도를 더욱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사이와 세리의 기도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비유에는 의인으로 자처하는 바리사이와 공적 죄인으로 멸시당하는 세리가 등장합니다. 사실 길으로 드러난 삶에서 두 사람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바리사이는 자신들이 완벽하게 산다고 확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리는 입에 하느님의 기도를 담기도 죄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기도하는 세리가 하느님의 마음에 들었다고 단언하십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바리사이의 교만을 지적합니다. 그는 남들의 결점이나 잘못을 들추어내고 비방합니다. 자신은 다른 이와 질적으로 다르다고 자부합니다. 그의 기도는 하느님께 드리는 영광이 아니라, 교만스런 자기 자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세상에는 나 말고도 올바르게 사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신의 의견이,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보십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하느님 앞에 죄인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완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겸손하고 순수한 마음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느님의 은총입니다.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전적으로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들을 차별 없이 사랑하시고 죄인들에게도 자비심을 갖고 계십니다. 하느님은 죄인이 죽기를 바라지 않으시고 살아서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 서울대교구 허영엽 마티아 신부 -



마중물

성가도 한 곡 못 부르면서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교에 적을 두고 있는 어떤 교수님에 관한 이야기이다. 어느 날부터인가 그 교수님의 모습에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길을 걸어가거나 책상에 앉아 있을 때 무엇인가 계속해서 입으로 흥얼흥얼대는 것이었다. 너무나도 이상한 모습에 학생들이 대표를 몇 명 뽑아서 한번 그 사연을 알아보기로 했다. 교수님은 학생들의 방문한 목적을 듣고서는 빙그레 웃으면서 이러한 사연을 말해 주었다. 얼마 전에 자신이 꿈을 꾸었다고 했다. 하늘나라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신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쪽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다. 여기저기에서 천사들이 줄을 선 사람들의 자격을 심사하고 있었다. 그 교수님도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드디어 천사가 나타나서 이러한 질문을 했다. “성가 중에 이리이러한 것 있지? 어디 그것 한번 불러 봐!” 그러나 늘 책과 씨름만 했지 언제 성가

를 제대로 불러 보았겠는가? 우물우물 몇 소절하다가 는 끝내지도 못하고 중단하고 말았다. 그 모습을 보고서 천사가 호통을 쳤다. “이 사람 정말 형편없는 신자구먼! 성가도 제대로 못 부르면서 어떻게 천국에 올려고 그래?” 천사가 호통을 치는 소리에 깜짝 놀라 꿈에서 깨어났다는 것이다. 꿈속에서 너무도 혼이 난 이 교수는 그 이후부터 시간이 있는 대로 계속해서 성가를 부르며 자신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도록 애를 쓰게 되었다는 것이다. “기억하자! 천국은 성가를 부르는 소리가 충만한 곳임을!”



‘신앙의 해’ 교육자료

제 6절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셨다”



59.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듯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땅에서 들어 올려지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 이끌어 들일 것이다.”(요한 12,32)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높이 들림은 승천으로 하늘에 높이 오름을 의미하고 예고합니다. 십자가는 승천의 시작입니다. 새롭고 영원한 계약의 유일한 사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느님 앞에 나타나시려고 바로 하늘에 들어가신 것입니다”(히브 9,24).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당신의 사제직을 영원히 수행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통하여 하느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을 언제나 구원하실 수 있으시다. 그분께서는 늘 살아 계시어 그들을 위하여 빌어 주신다”(히브 7,25). “좋은 것들을 주관하시는 대사제”(히브 9,11)이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하느님 아버지를 경배하는 전례의 중심이며 주재자이십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662항).

- 『저는 믿나이다』, 청주교구 복음화 연구소, 2012 -